

건축문화 **사라망**

Vol.026 10. JAN 2012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라망** 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건축
문화사라망' 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원본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신 뒤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2.01

026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광주 개최

2012. 10. 25(목) ~ 26(금)

건축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를 생각하다

강성익 대회장 인터뷰



담양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건립사업 설계경기



제15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금상 큰 빛 자연생태 어린이집

공동발행인 신년사 02

시론 03

건축설계 사대주의 버려야... _추원호

특집기획 04-05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광주 개최_ 건축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를 생각하다.

건축과 도시계획 06

세계의 신도시, 5부 - 바우만, 불더시티 _도영준

건축과 도시철학 07

청주도시에서의 건축의 가치 _손승광

설계경기 08

담양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건립 건축 설계경기

작품소개 09

제15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금상 - 큰 빛 자연생태 어린이집

사람 & issue 10

'유쾌 · 상쾌 · 통쾌'함을 주는 건축사 _김남중

건축설계의 사대주의 버려야...

'유쾌 · 상쾌 · 통쾌'함을 주는
전주 김남중 건축사 인터뷰



말레니엄주거단지 빌딩, 런던

2012 임진년! 독자여러분 힘차게 출발합시다



Photo by 임낙관

존경하는 건축문화사랑 애독자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건축문화사랑"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축문화사랑"을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세계금융불안의 여파와 기간산업 위축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기 상황은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내 건축설계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건축경기 침체로 이어져 건축설계업계 모두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의 삶과 예술의 본질인 건축문화가 죽고서는 그 어떤 미래의 청사진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 건축문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민들의 건축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매년 성대하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도시 경쟁력이며 지역의 경쟁력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가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은 못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건축인식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건축문화사랑은 노력해왔습니다.

금년에도 건축문화사랑은 우리 사회의 건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건축문화의 발전과 지역민에게 건축을 문화예술로서 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독자에게 우리 지역의 물론 국내외 최신의 정보를 전달하여 건축문화 창달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축문화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여 도약할 것이며 그 주역인 건축사의 위상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가능성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도전과 시련 그리고 기회를 동시에 줄 것입니다.

새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흑룡의 해'입니다. 힘차게 승천하는 용은 희망과 발전을 상징합니다.

흑룡의 기운을 받아 우리 모두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희망찬 임진년! 우리 함께 힘차게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

2012. 1.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이성엽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심상봉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윤문곤

壬辰年 새해 광주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회 장 심 상 봉
부 회 장 강 석 훈
부 회 장 강 필 서

이								감
사								사
강	김	김	박	신	정	정	차	이
현	권	선	홍	찬	명	상	은	조
구	수	영	근	균	철	채	영	후
								환

건축설계의 사대주의 버려야...



주원호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2012년 국내의 건축설계 시장은 풍요(豊饒)스런 건축의 해가 될 것 같다. 그러나 국가의 자본주의와 재계의 자본주의가 일궈낸 영향으로 국내의 유명건축사보다 외국 건축사들의 작품을 선호하는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국내의 대형건축프로젝트들을 외국작가들의 손에 의해 빼앗기고 있다.

2011년은 예년에 비해 최고의 풍작과 함께 풍요로운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8.9월이면 항상 들이닥치는 태풍 때문에 농작물은 피해가 많았지만, 잦은 태풍조차도 올리는 살살 비켜가고 2011년은 운수 좋은 신묘년으로 기록될 것 같다.

이와 함께 건축계에서도 대형 프로젝트들의 설계경기와 함께 사대주의적인 외제 건축가들의 유입으로 국내 건축계는 엄청난 양의 건설소식이 들리고 있다.

국내 건축사들이 발디딜 틈 없는 국내 건축설계 시장

외형적으로는 국내의 건축설계 시장도 풍요(豊饒)스런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러나 국가의 자본주의와 재계의 자본주의가 일궈낸 영향으로 국내의 유명건축사보다 외국 건축사들의 작품을 선호하는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국내의 대형건축프로젝트들을 외국작가들의 손에 의해 빼앗기고 있다.

배경이야 어떠하든 초특급을 달리는 외국 건축사들의 방한 러시가 이루어져 설계경기론, 프로젝트 수행차원으로는, 주차차원에서든 국내의 건축 설계업에 많은 진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의 300m 초고층 건물을 거의 외국작가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외국 작가들의 유명세를 빌어 그들의 부가가치를 이용해 보려는 알뜰한 속셈일 것이고, 국내 건축사들은 외국 업체의 잔심부름만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에서 건물높이 300m 넘는 한국의 대표적인 초고층 빌딩을 보면,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세워지는 70층 높이(305m)의 동북아 트라이드타워는 미국 KPF에 의해 설계되었고, 서울 송파구 잠실에 공사 중인 123층(555m)의 잠실 롯데슈퍼타워는 미국 S.O.M에 의해, 부산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세워지는 108층(418m)의 WBC 슬로몬타워는 미국의 아심 토트에 의해, 용산 랜드마크타워 100층(500m)은 이탈리아 RpBw에 의해, 부산 롯데타운 107층(510m)은 미국 S.O.M에 의해 설계되었다. 이처럼 높이 300m를 넘는 한국의 대표적인 초고층빌딩은 외국의 유명건축설계 회사가 설계시장을 점령해 버렸다.

그동안 부동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주춤되었던 초고층 프로젝트들이 이제 막 물부림을 치고 있는 와중에, 그 대형 프로젝트의 설계자는 한국 건축사가 아닌 외국 건축설계업체들에 의해 다뤄지고 있다는 점과 초고층건축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해 버렸다는 점에서 우리를 서글프게 한다.

특히, 초대형 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용산 국제 업무 지구는 국내건축사가 참여하지 못하고 해외 유명 건축설계회사들의 독무대를 이루고 있다. 우리에게서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버즈 두바이에 있는 162층(828m) 부르즈 칼리파 빌딩을 한국의 삼성에서 2010년에 건설하는 등 한국의 건설사들은 초고층빌딩 시공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초고층 설계시장에서는 국내 건축사들이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뒷전에 밀리고 있다.

이와 같이 초대형 빌딩의 설계 공모과정부터 국내 설계업체는 배제된 채 외국 유명건축설계 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함에 따라 '사대주의적 건축설계공모전'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보더라도 총사업비에 31조 원, 설계비에 3,269억원이 투자되지만 국내 설계업체의 신기술 향상과 실적은 쌓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 설계회사들이 기획부터 구역별 건축설계까지 도맡아 시행하고 있다.

총괄기획자로는 9.11테러로 무참히 무너진 미국 뉴욕무역센터 설계를 맡은 다니엘 리베스킨트가 하고 있고, 독일 베를린 소니센터를 설계한 렌쯔피아노,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칼리파 건물을 설계한 미국 건축가 아드리언 스미스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국내 건축사들이 설자리가 없어지고 코앞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눈뜨고 참만 삼킬 뿐이다.

이것은 곧 자본가들의 사대주의적 근성으로, 외제차와 외국 상표만 골라 선호하는 것처럼 대리만족을 하고 싶은 심산일 것이다.

국내 건축사들과 국내 자본가 모두 장래 건축시장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최근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제부터는 외국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리고 무역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는 각종 문화의 무차별 유입이 시작 될 것이며 국내의 자본가들은 기술력 있고 믿음만한 외국브랜드 기술력에 더욱 의존할 것이고, 그들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건물도 외국 유명작가에 의해 설계되었다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는 미국 작가에게, 어떤 프로젝트는 프랑스 작가에게, 어떤 작품은 이탈리아 작가에게 등등으로 마치 상품 고르듯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국 유명작가에 의해 설계되어지고 세워지는데도 국내 건축사들은 속수무책으로 한숨만 쉬고 있을 것인가? 속수무책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동차와 가전제품도 외제물건에서 기술력을 배웠듯이, 비록 자존심과 주체성이 상하지만 하나하나 기술력을 터득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즉, 실력배양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탓을 먼저 생각해 보자.

그리고 국내 자본가들은 무조건 외국 작가들 것만 선호할 것이 아니라 장래를 고려해서 국내 건축사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사대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

최근 FTA가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국내의 자본가들은 작품설계를 기술력 있고 믿음만한 외국브랜드 기술력에 더욱 의존할 것이고, 그들의 이름을 빌어 자신 건물도 외국 유명작가에 의해 설계 되었다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국내의 건축 설계업은 한숨만 나오게 될 것이며, 속수무책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동차와 가전제품도 외제물건에서 기술력을 배웠듯이, 비록 자존심과 주체성이 상하지만 하나하나 기술력을 터득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壬辰年 새해 전담 · 전북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회장 윤문곤
부회장 조성문

회장 이성엽
부회장 이정호

이	김	목	순	여	나
사	사	포지	천지	수지	주지
이정환영	장준기	이혜근	김정심	박강룡	김기호

직전회	이	김	김	김	김	안	이	이	이	이	이	추	한	현	이
장	사	주	기	남	성	종	영	길	동	두	준	태	원	병	주
식	수	중	수	용	묵	환	인	필	수	원	호	진	익	희	호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광주 개최 건축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를 생각한다.

- 2012년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 일원에서 개최
- 전국 1만여 건축사 참여,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사의 위상 제고 기대



2010 대한민국건축사대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당시 회장으로부터 대회기를 전달받고 있는 광주건축사회 신정철 직전회장

대한민국건축사대회란 무엇인가!

건축문화는 개인뿐만 아니라 도시와 국가의 품격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때로는 건축물이 도시와 국가의 이미지를 대표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것은 건축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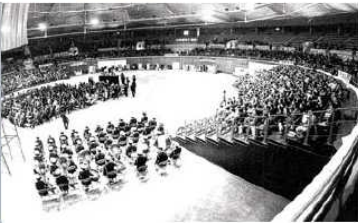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건축사들의 역할이 적절하게 인식되고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건축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시급하였다.

건축사 업무 및 건축문화 전반에 걸쳐 회원들의 의견과 생각이 토론폰되어질 수 있는 모임의 장이 필요하게 되어 전국의 건축사가 한자리에 모여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건축사 스스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공동인식의 마당으로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기획된 것이다.

첫 대회는 1989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내 펜싱경기장에서 개최되었으며 91년 대회부터는 격년제로 개최하였다. 대회의 목적은 대회주제를 중심으로 한 정보교환, 건축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제고, 건축사 상호간 친목도모와 단합, 건축제도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등을 들 수 있다.

역대 건축사대회 소개

1989



- 일시: 1989. 3. 29 ~ 30
 - 장소: 서울 올림픽공원 내 펜싱경기장
- 전국 3천 2백여 건축사 회원 및 건축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89 전국건축사대회는 협회 창립 25주년을 기하여 전국의 건축사가 한자리에 모여 '정보화 사회와 건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과 토론회 등을 통한 정보교환, 건축행정 제도의 점진적 개선 추구, 그리고 친목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대회 집행위원회에서 이를 동안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회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1990



- 일시: 1990. 3. 22 ~ 23
 - 장소: 서울 한국종합전시장
- 전국 3천 9백여 건축사 회원 및 건축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환경과 국민의식'이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건축사 연수교육을 비롯한 건축사 작품전과 건축기자재 및 CAD품평회 등이 진행되었다.

1991



- 일시: 1991. 6. 3 ~ 4
- 장소: 서울 올림픽공원 내 역도경기장

1993



- 일시: 1993. 3. 18 ~ 19
 - 장소: 서울 한국종합전시장
- 전국의 4천 5백여 건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한국, 새환경, 새건축'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새시대 환경변화에 따른 건축사의 자기성찰과 위상을 제고하여 협회를 중심으로 한 전국건축사의 일체감 형성과 화합을 통한 협회발전 및 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의대회를 비롯한 특별강연회, 토론회 등이 개최되었다. 특히 결의대회에서는 당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건축사법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는 물론 계약조항의 발의를 적극 지지할 것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2005



- 일시: 2005. 6. 24 ~ 25
 - 장소: 부산 전시컨벤션센터(BEXCO)
- 93년 대회 이후 12년 만에 부활한 전국건축사대회는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건축문화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가운데 전국 4천여 명의 건축사들이 참여하였다. 이전 행사들과는 달리 전국건축사 추경동호회 친선경기대회, 전국건축사 회화전, 건설산

2007



업관리(CM) 세미나, 패션쇼, 건축사 만남의 광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 일시: 2007. 10. 4 ~ 6
 - 장소: 서울 삼성동 코엑스
- 6천여 전국 건축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건축사, 문화의 경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열린 2007 서울대회는 건축사답사 및 투어와 한국건축신문대전 참관이 이어졌으며 사찰의 현황행사 및 세미나, 특별강연, 건축사의 밤 행사 등이 열렸다. 특히 서울 대회는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는데 당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강재섭, 남경필, 나경원, 김진애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2010



광주광역시 강운태 시장의 광주개회 축하동영상 상영

- 일시: 2010. 10. 20 ~ 24
 - 장소: 경기도 일산 킨텍스
- 2010년 대회부터는 공식 행사명이 '대한민국 건축사대회'로 명명되었다. 경기도 일산에서 1만여명의 건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건축을 선도하는 건축사'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당시 녹색성장을 기점으로 한 정부의 신성장 동력 정책에 맞춰 친환경 건축설계 관련 각종 연수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전시와 무한돌봄사업 후원 비자회 등 다양한 전시 및 기타행사가 열렸다.
- 이 대회에서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최지가 광주광역시로 결정되었다는 것이 선포되었으며 광주광역시 강운태 시장은 동영상을 통해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짐하였다.

KIRA National Convention 2012 Festival of Korean Architects

2010년 10월 경기도 일산, 전국 1만여 건축사가 참가한 가운데 '2010 대한민국건축사대회'에서 2012년 차기대회 개최지를 '광주광역시'로 선포하는 순간 광주지역 건축사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 당시 광주건축사협회를 역임하고 있던 신정철 前 회장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직 당시 회장으로부터 대회를 전달받으며 1만여 전국 건축사들 앞에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약속하였다.

이에 본지에서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최를 10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그와 더불어 건축사대회에 관한 일련의 내용들을 독자를 비롯한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홍보하고자 이번 특집을 기획하였다.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강성의 대회장(대한건축사협회장)에게 건축사대회를 묻다.



본지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번 신년 특집을 기획하면서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장인 강성의 회장과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일정상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음을 밝힌다.

- 편집자 주 -

○ 대회장께서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으로서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 취임 후 회원 분들께 약속한 건축사 생존권을 지키는데 노력해왔고, 현재 그간 추진해온 사업들이 조금씩 빛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30일 극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점검을 의무화'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친환경건축관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도 함께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협회가 노력해온 업역확대에 대한 숙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어려움으로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많은 분들이 성원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 협회운영과 모든 정책의 초점은 건축사생존권에 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각종 법·제도 개선, 건축정책 및 문화진흥, 대국민 홍보, 대외협력, 협회발전 등이 본 사업에 집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임기 중 반환점을 돌았는데 임진년 새해는 지난해의 경험을 살려서 한층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업무대행을 건축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심의 중에 있고, 건축 분야를 지식서비스산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정부의 지원내용을 담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도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는 등 법·제도분야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갖는 의미와 효과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대내적으로는 건축사들의 내부결속력과 화합을 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건축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전국에 실패줄처럼 연결된 시도건축사회의 지역건축사회의 조직력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건축사들의 위상과도 연결됩니다. 건축사교육, 건축관련 산업전시회, 건축문화대상전 등을 통해서 사회적 발언과 건축사들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사대회는 정부, 국회 등 사회지도층에 건축사들의 목소리를 힘 있게 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건축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 광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2005년 부산대회에 이어 수도권 지역 외 지방에서 두 번째로 개최됩니다. 이에 대한 의미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빛고를 광주는 예항의 도시이기도 하고 특히 광주광역시장님께서 건축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요체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광주라는 도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축사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심상봉 회장을 비롯한 회원분들의 내부결속력이 탄탄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주건축사회가 건축문화에 대한 투자와 열정을 개인적으로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부산에 이어 발행되는 건축정론지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행만 보더라도 건축문화 저변확대에 대한 광주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진다면 부산, 광주에 이어 타 지역에서 개최 희망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건축사대회는 전국 1만여 건축사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해당 지역 건축사회에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추진하셨거나 추진예정인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새롭게 대한민국 건축이 나아가야 할 화두를 제시하고, 건축사대회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쓸 계획입니다. 행사개최를 위한 본 협회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지원은 물론 각종 후원금도 모집하는 등 금전적인 지원을 최대한 할 것이며, 인력지원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개최지역 집행위원 및 분과위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 지역여건상 개최준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2년 총선, 대선 등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대회를 통해 전략적으로 건축사들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광주, 전남지역의 특성에 맞는 음식이라든가 숙박 등에도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지역에서 개최하는 건축사대회에 대한 운영 및 시행 매뉴얼도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들과 협력하여 논의할 계획입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많은 건축사들이 광주의 매력에 흠뻑 빠져지 되는 건축사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끝으로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 건축사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입니다. 협회의 대외적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 발언을 힘 있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한 만큼 회원분들께서 다 함께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십시오.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

대회명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KIRA National Convention 2012 Festival of Korean Architects)

일 시 : 2012. 10. 25 (목) ~ 26 (금)

· 본대회 26일 (금)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주 최 : 대한건축사협회 (KIRA)

주 관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KIRA Gwangju)

후 원 : 국토해양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설단체연합회, 광주건축단체연합회

이번 건축사대회 주관 단체인 광주건축사회에 따르면 현재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을 중심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산하 6개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 12월 13일 광주건축사회관 회의실에서 분과위원회별 전체 합동회의를 열고 담당 업무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 대회조직도



▶ 각 분과위원회별 담당업무

추진분과	추진내용
집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회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 대회 예산운영계획서 및 결산서 작성 후원업체 선정, 후원금 및 현찬금 모금에의 참여 분과위원회 구성 및 업무분장 대회 행사 대행업체 선정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준비 조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대회 주제선정 기타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회 운영 매뉴얼 총괄관리 프로그램 기획 행사 시나리오 기획 행사 프로그램 뷰 계획 프로그램 스태프구성 기획
재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서 작성 자금관리 행사주관종합계획 수립 개회식 준비업무 장소점검 건축사대회 참가자 주차공간 확보 및 계획 셔틀버스 운영계획 수립 구급 비상차량 및 간호사 파견 협의 대회 등록업무 대외협력업무
행 사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전 종합계획 수립 본부(조직 및 집행위원회) 호텔 객실 현황 조사 및 자료 수집 대회 홍보종합계획 수립 대회 기념책자 제작 차기 대회 개최지 홍보물 접수 건축사의 자경 합창단원 모집 및 연습계획 한국건축문화대상 광주 전시계획 수립
행 사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계획 수립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홍보계획 수립
홍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계획 수립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홍보계획 수립
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계획 수립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홍보계획 수립

▶ 대회구성

구 분	행사내용
1일차(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광주·전남 건축물 답사 및 투어 대한건축사회장배 축구대회 전국건축사 회화전
2일차(1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선포식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기념식 건축사 연수

세계의 신도시_ 5부

>> 첨단그린시티 - 바우반, 국토개발(댐)을 위한 배후도시 - 볼더시티

- 1부 : 개요 호주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 그린피스 - 2011년 9월호
- 2부 :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신수도 내피도, 캐나다 최초 기업도시 돈밀스 - 2011년 10월호
- 3부 : 간척지의 중심도시 및 주도 웰리슈타트, 세계안보정책에 의한 신도시 로스앨레모스 - 2011년 11월호
- 4부 : 대규모 기업도시 리포카라와치, 민간기업에 의한 단독주택단지 미션베이호 - 2011년 12월호

건축과 도시계획이란 지면을 개설하여 2011년 4월호부터 8월호까지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김현숙 교수의 전라북도 진주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011년 9월호부터는 세계 여러 신도시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도시계획 전문가인 호남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도영준 교수의 원고를 연재·기획하였다.



바우반/Neighborhood of Vauban/첨단그린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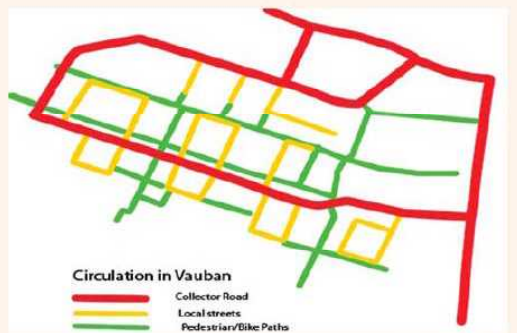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 Württemberg)주 남서쪽 끝 프라이부르크(Freiburg)시 도심에서 남쪽으로 약 4.0km 지점, 과거 프랑스군 주둔지였던 곳에 1990년대 중반부터 개발이 시작된 신도시(new neighborhood)로 약 5천 명의 주민과 약 600개의 일자리가 제공되었다. 바우반의 도시계획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개발목표는 지속가능한 이상적 지구(sustainable model district)로 2001년 초부터 약 2,000명이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 ② 모든 주택과 건물은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설계하였고, 열병합발전과 태양열로 공급하고 있다.
- ③ 프라이부르크 시내를 연결하는 간선가도를 제외하고 바우반 단지 내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모든 자동차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 ④ 2008년 입주한 가구의 약 70.0%가 승용차가 없고, 실질적으로 약 57.0%는 이곳에 이주하면서 자동차를 팔았다고 한다.
- ⑤ 주택에는 개인 차고를 금지하고 단지 외곽에 공용주차장을 배치하였으며, 전용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1개 주차구획에 약 4만 달러(2008년 기준)를 지불하고 임대하여야 한다.

오늘날 바우반은 첨단 그린시티(green city)의 대표적인 성공사례(2006년)가 되었고, 이 그린시티 개념은 미국과 영국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로 널리 퍼지고 있다.



바우반 시가지 전경
올리버베르크(태양광 연립주택단지)는 바우반 내 종종 간선가도의 바로 동쪽에 위치한다.



바우반 통선구상도

볼더시티/City of Boulder City/국토개발(댐)을 위한 배후도시

미국 서부 네바다(Nevada)주 남동부 끝 클라크카운티(Clark County)의 중앙에서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도시(model city)이다.

네바다주 중심도시인 라스베이거스(Las Vegas)시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약 32.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면적 약 524.9km²에 인구는 약 17천 명(2008년)이다. 볼더시티의 도시계획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1930년대 미국은 경제공황을 타개하려고 국토개발 정책의 하나로 볼더댐⁽¹⁾을 건설하였다.
- ② 볼더시티는 1934년 볼더댐 건설노동자를 위한 주택단지로 미국 상무부 재개발국에서 개발하였다.
- ③ 도시의 기본계획은 사코 드보어⁽²⁾가 1930년에 계획하였다.
- ④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전체에 도박과 음주를 금하였다.

볼더는 1960년(1월 4일) 공식적으로 행정구역(시)이 되었다. 도박은 계속 금지되고 있으나 음주는 1969년에 허용하였다. 미국 내에는 볼더와 같이 댐 건설노동자를 위한 주택단지로 개발된 신도시⁽³⁾가 또 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볼더 중심시가지 전경



바우반은 독일 남서부 바덴 뷔르템베르크 (Baden Württemberg)주 남서쪽 끝 프라이부르크(Freiburg)시 도심에서 남쪽으로 약 4.0km 지점, 과거 프랑스군 주둔지였던 곳에 1990년대 중반부터 개발이 시작된 신도시이며, 볼더시티는 미국 서부 네바다(Nevada)주 남동부 끝 클라크카운티 (Clark County)의 중앙에서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도시(model city)이다

- 볼더시티
- (1)볼더댐 : 볼더댐은 오늘날 후버댐(Hoover Dam)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 (2)사코 드보어 : Saco Rienk DeBoer/1883 ~ 1974년. 네덜란드(Netherlands) 북부 프리슬란트(Friesland)주의 동쪽 유레르프(Ureierp)시에서 태어난 미국의 조경계획가이며 도시계획가이다. 1910~1931년 덴버(Denver)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며, 도시계획보다는 조경계획 분야에 많은 작품을 남겼다. 미국 도시계획협회 협회장을 비롯하여 몇 개의 공로상을 받았다.
 - (3)신도시 : 미국 중동부 테네시(Tennessee) 주의 중앙에서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노리스(Norris)시로 노리스댐을 건설하기 위한 노동자 주택단지로 개발되었다.

Neighborhood of Vauban City of Boulder City



▶ 볼더 기본계획도(1930년/사코 드보어) 볼더 중심시가지도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건축과 도시철학_ 1부

» 창조도시에서의 건축의 가치

창조적 도시와 건축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예술적, 사회적, 문화적 능력을 심화시키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전문적인 재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과 작업과정도 필요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기획과 계획, 설계와 공사 등의 과정에 빨리 빨리 문화가 걸림돌이다. 독창적인 사고,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기획과 디자인작업은 창조적인 도시와 건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코펜하겐의 부두에 있는 건물디자인(Steven Holl) 코펜하겐의 부두에 있는 건물로 문화의 양쪽이 건물이 세워져 있다



이스탄불 보스포루스해협의 도시경관



이스탄불의 기존 시가지건축의 콘텍스트를 존중된 새로운 건축을 디자인



손승광 교수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sskshon@dream.wiz.com

이번호부터 '건축과 도시철학'이라는 지면을 개설하여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의 원고를 4회 기획하였으며 2012년 4월호까지 아래와 같은 주제로 연재된다.
2부 : 현대건축의 가치관 변화와 혼돈 - 2012년 2월호
3부 : 도시의 공공성과 건축 - 2012년 3월호
4부 : 시민참여로서 창조도시와 건축 - 2012년 4월호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건축이라면 건축은 창조적 과정의 산물임에 틀림없다. 인류가 발전하면서 수많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왔으며, 특히 근대도시이후, 우리나라는 최근 50년 동안에 엄청난 양의 건축을 하여왔으며, 우리는 개발시대를 지나왔다고 말한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이러한 근대화 과정을 우리는 '창조'라 하지 않고 왜 굳이 개발이라고 하는가? 창조는 일상적인 만들기나 개발과는 구별한다. 사람들은 진부하고 일상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비록 하고는 있더라도 그것을 창조라고 하지 않는다. 수많은 행위들과 차별화되는 개성과 특징이 있을 때 이를 창조라고 한다.

창조적인 건축에 담긴 여러 가지 특징

창조적인 건축에는 기념비적인, 시대적, 사회적으로 혹은 예술적 의도가 담겨있거나 삶과 생활을 담은 일상으로서 창조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 고대건축 중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게 남아있는 피라미드는 이집트왕조의 무덤이다. 무덤은 모든 나라 인종들이 사용하는 문화적 산물이지만 피라미드의 거대함, 사막에 기념비적으로 조성한 장소만들기, 강한 이미지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피라미드는 사막이라는 대자연과의 존재로서 건축된 거대함과 창조적 특징이다. 현대사회에서 창조적인 건축이란 자연과 기념비적으로 만나는 관계보다는 이미 형성된 도시 안에서 다른 건축물들과 차별화된 독특한 공간,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창조성을 의미한다.

근대화과정에서 양적인 측면에 급급한 나머지 대량생산이 경제활동의 미덕이었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도시 중에 비어가는 건축물들이 많아지게 된다. 이제는 질적인 가치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대량생산의 폐해는 특징 없는 건축물들이 양산되어 특징 없는 건축물로 이루어진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무미건조한 환경에 대한 진부함이겠다.

창조적인 건축과 도시를 추구하는 콘셉트는 전혀 다르다. 독창성을 추구하는 예술적 입장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코드가 있다는 점이다. 독창성과 다양성의 공통점은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공통특성의 하나는 호기심이 많고 그 호기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금방 실증을 내고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다. 새로운 것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건축가들이 그때까지 널리 알려진 타입의 건축이 아니라 기능은 같더라도 새로운 해석과 시도로서 창조적 공간을 연출하고 만들어내는 독창성에서부터 연유한다.

독창성과 창조적 입장은 진부함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창조적 작품의 진가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하는 가치성을 인식하는 수요자가 창조적 도시와 건축의 원동력이 된다. 독창성과 창조적 입장은 진부한 것을 거부하는 데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그동안 진부한 건축을 부정하고, 낡은 환경을 제거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시함으로써 과거와 차별화되는 입장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를 부정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과정은 개발논리와 맥락을 같이할 수 있어서 경제적 산물로 집착하기 쉽다는 점이 자꾸 드러난다.

독창적인 건축이나 작품은 오랜 역사와 문화적 다양성을 통하여도 얻을 수 있다. 건축작품 하나만으로 본다면 건축디자인의 독창성만으로 평가하지만 도시를 살펴보면 수많은 건축물로 이루어진

것이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창조적 도시는 건축물 하나하나도 의미가 있으나 도시에 산재하는 건축물들의 집합 요소들이 얼마나 다양한 요소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있는가 하는 것도 역사와 문화로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독창적인 미학이 될 수 있겠다.



말레니엄주거단지 빌딩, 런던

동서양이 만나는 터키의 이스탄불은 현대식 건축물이 우수하거나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세와 고대에 건축된 우수한 건축물, 다양한 건축양식의 디자인이 축적된 도시경관은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황홀한 도시이다. 수천 년 동안 그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숨결과 문화적인 자취를 더듬어보면서 문화적인 호기심을 가진다. 이곳에서의 창조는 그러한 역사와 문화적 코드를 살리면서 새로운 건축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운 창작활동은 무공무진하며 그 결과 또한 문화자원이 되면서도, 창조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건축가에게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진지함과 끈기가 필요하다. 빨리 빨리 서둘러서 진부하지 않고 독창적인 것을 얻는 것, 이러한 독창적인 특성을 살리면서 전체를 다양한 특징들로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건축과 도시를 이용하여 외부지역 다른 나라로부터 새로운과 다양한 매력요소를 보여주는 창조마케팅의 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창조적 자세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의 능력을 심화시키는 것 또한 필요

창조적 도시와 건축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예술적, 사회적, 문화적 능력을 심화시키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전문적인 재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과 작업과정도 필요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기획과 계획, 설계와 공사 등의 과정에 빨리 빨리 문화가 걸림돌이다. 독창적인 사고,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기획과 디자인작업은 창조적인 도시와 건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창조적 작업은 기계적 반복과는 상충된다. 기계적 반복 작업은 반-사회적, 반-예술적이다. 흔히 경제적인 비용을 낮춰서 공급가를 낮추고 물가를 맞추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가장 기계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획일적인 건축을 지금도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GNP 2만 달러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에도 버젓이 들어 먹히는 현실이다. 건축과 아파트단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장 저렴하다는 방식의 사업을 기획하여 완성한 다음 불특정 다수가 되는 소비자 혹은 입주자들에게 판매하고 다음 사업으로 사라지는 현실은 우리 도시가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가장 걸림돌이다.

가장 저렴하게 설계하는 건축계약에서 문화, 창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최소비용으로 창조적인 건축과 도시를 의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저가의 계약이 원가절감이라고 자신하는 풍토에서 문화와 창조적 산물을 기대할 수 있을까? 당연히 허접한 설계와 결과물이 남게되고 이러한 악순환은 반복된다. 그러한 것도 공공사업과 국가적인 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독창적인 건축이나 작품은 오랜 역사와 문화적 다양성을 통하여도 얻을 수 있다. 건축작품 하나만으로 본다면 건축디자인의 독창성만으로 평가하지만 도시를 살펴보면 수많은 건축물로 이루어진 것이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창조적 도시는 건축물 하나하나도 의미가 있으나 도시에 산재하는 건축물들의 집합 요소들이 얼마나 다양한 요소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있는가 하는 것도 역사와 문화로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독창적인 미학이 될 수 있겠다.

담양군은 담양읍 학동리 56-5번지 일대에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건립한다. 총사업비 54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이다. 본 건물은 지속가능한 대숲 맑은 생태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기후변화 등의 홍보를 위한 전시, 환경체험교육의 기능을 갖추며 대나무를 형상화한 랜드마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개념에 맞는 친환경 건축물로 건축하고자 한다. 외부 관람객 및 시민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차별화된 최고의 문화콘텐츠이자 기후변화의 구심점과 생태도시 담양의 랜드마크의 조성을 목표로 한 작품이 본 설계경기 응모에 당선되었다. 아쉽게도 우수작은 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게재하지 못하였다.

• 당선작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_조성호 건축사

• 우수작 (주)세우리건설 건축사사무소

• 가작 (주)발해 건축사사무소_이주경 건축사

담양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 건축 설계경기

당선작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_조성호 건축사



대지위치: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56-5,6,7 지번 내
 체험교육관 대지면적: 6,000㎡ 중 3,600㎡
 건축면적: 592,32㎡
 연면적: 1,045,96㎡
 건폐율: 16.00%
 용적율: 20.07%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외부 마감: 친환경 목재루버, 3중 로이유리, AL스워드



가작 (주)발해 건축사사무소_이주경 건축사

체험교육관 대지면적: 6,000㎡ 중 3,600㎡
 건축면적: 915.05㎡
 연면적: 1,038.03㎡
 건폐율: 25.45%
 용적율: 10.63%
 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층수: 지하 1층, 지상 1층
 외부 마감: 화강석축두기, 티타늄아연판, THK24로이복층유리





건물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호동 537번지 외 2필지
 지면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 3,621.00㎡
 건축면적 : 900.91㎡
 연면적 : 1,897.73㎡
 건폐율 : 24.88%
 용적율 : 42.80%
 주차대수 : 9대
 외부마감 : 티타늄아연판, 친환경합성목재, 알루미늄시트

2011년 제15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금상

— 백두건축사사무소 강연심 건축사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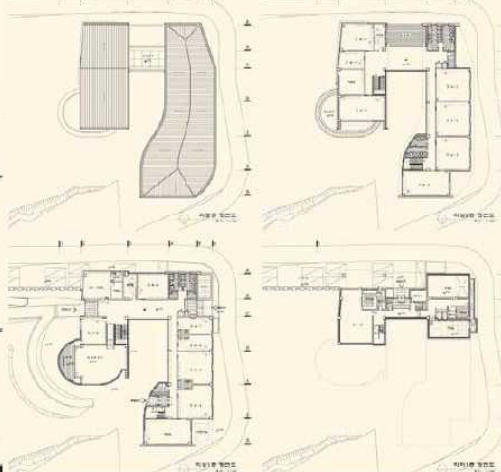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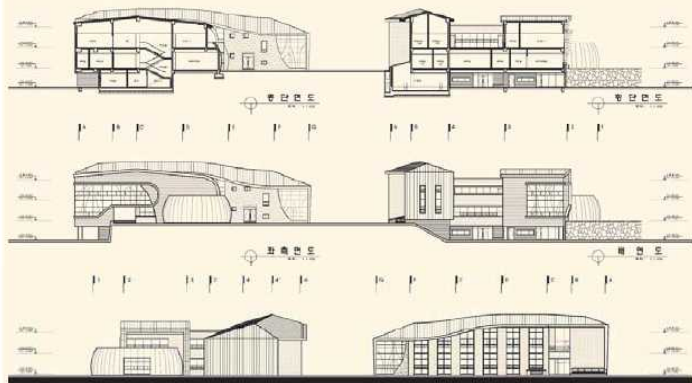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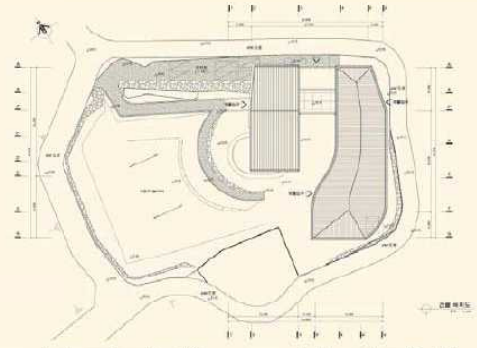
큰 빛 자연생태 어린이집

Mass Concept

자연속의 어린이집은 어떠해야할까? 이것은 처음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할 질문이다. 씨앗하나를 심어 기다림과 호기심으로 밤을 설쳤던 어린이집의 동심과 기억으로 운영자와 관리자 입장과의 벽과 타협해야한다. 맘놓고 놓고싶고, 내달리고 가고싶고,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안밖으로 순환되며 어울린다.

실내의 연속된 개방감은 자연스레 분절된 매스와 함께하는 옥외공간들과 연계된다. 이러한 자연과 아이들의 소통을 위한 설정속에서 아이들은 등골면서 사선지고 가뒤희는 형상과 공간감을 체험한다.

구석구석이 아이들에겐 놀이터다.



미술 생태실

'유쾌, 통쾌, 상쾌' 함을 주는 건축사 _ 김남중 건축사

김남중(金南重) 건축사는 전북 전주시를 대표하는 건축사 중 한 사람이다. 전주시 아름다운 건축상을 4번이나 수상하였고, 금번 제12회 전라북도건축문화상에서도 금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통해 그의 열정적인 작품활동과 명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전라북도건축사회 전주시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남중 건축사의 '건축인생 풀스토리'를 들어보거자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사옥을 방문하였다.



전북 전주 / (주)라인종합건축사사무소 김남중 건축사

'이 길이 나의 길(My Way)이다' 라고 확신했던 대학시절

김남중 건축사. 그는 대학시절 은사님을 떠올리며 건축의 길로 임문하게 된 계기를 말해주었다.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2학년 재학시절 설계수업을 하였던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은 항상 입버릇처럼 '건축을 하기위해서는 바람처럼 이리저리 싸돌아 다녀봐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을 따라 카메라를 들쳐 메고 여행을 다니며 여러 건축작품들과 배경 사진들을 찍었고 그 영향으로 '건축의 맛'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교수님은 트레이닝지를 나눠주시며 훌륭한 건축작품을 베끼는 연습을 자주 시키셨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손으로 하는 대부분 작업들은 어떠한 전문가보다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김남중 건축사는 그러한 환경과 노력 덕분에 대학시절 건축학 생태전 대상과 국전 인선을 하기도 하였다.



성경교회(2008)

그분을 평소에도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인연이라고 생각하며 그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 한분은 원광대학교 김광서 교수님으로 건축적인 부분도 가르침을 주셨지만 인간미를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저의 인생 멘토이기도 하지요."

인터뷰 도중 보여줄게 있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는 어딘가에서 가져온 주택모형을 보여주며 "이 집이 바로 제가 부모님을 위해 설계한 집입니다."라고 운을 띄운 뒤 "제가 지금도 저를 낳아주시 부모님께 설계를 못한다고 구박(?)을 받고 있습니다."라며 멧 짙은 웃음을 보였다. 그가 설계한 집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술관이나 병원으로 착각하게 할 만큼 멋진 작품이었으나 실제 생활하고 계신 부모님들은 방 구조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갖고 생활하신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아들이 최고의 건축사라고 자랑하신다는데..

가끔 머리가 복잡할 때면 바로 그 시골집에 가서 거실벽에 펼쳐진 큰 들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한다고 한다.

31세 젊은 나이에서 시작된 그의 '건축 20년의 철학'

김남중 건축사는 31세 젊은 나이에 건축사가 된 이후 20년 가까이 건축사의 길을 걸으며 매년 자신만의 철학을 확립하려고 노력하였다.

"젊었을 때는 훌륭한 작품을 모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시간이 가까워지는 요즘에는 제 자신만의 건축언어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축철학은 3단계를 거친다고 봅니다. 1단계는 핸드(Handing). 자기 스스로 기술을 습득하는 시기, 2단계는 헤드(Head).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채워가는 시기, 3단계는 하트(Hear). 감성과 영혼을 담아 비로소 자신의 철학을 담은 작품을 만들어 내는 시기입니다. 바로 지금 제 자신이 헤드와 하트의 경계선에 서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건축철학은 '넓다' 라고 밝힌 김남중 건축사는 '50세 이후 나만의 건축언어로 작품활동을 반드시 펼쳐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녀들에게 지부심과 꿈을 심어주었던 전주 여울초등학교(2001)



남원요양병원(2007)

내 아이들이 내 건축작품으로 꿈을 꾸다

교육시설 설계도 많이 했던터라 우연히도 자녀들이 자신이 설계한 초,중학교에 자다녔다고 하였다.

"건축설계를 하며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는 저희 아이들이 제가 설계한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에게 '이 학교 우리 아빠가 설계했다' 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했을 때입니다. 실제로 제 아들이 이로 인해 건축인으로서의 꿈을 꾸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끄러웠을 때는 저의 설계로 인해 실제 그곳에 생활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었을 때입니다."

김남중 건축사의 아들은 현재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고 한다.



2011 전라북도 건축상을 수상한 한자산업종합지원센터(2007)

존경하는 건축인은 승효상 건축사와 은사이신 김광서 교수

그는 어떠한 건축인을 가장 존경하는가란 질문에 두 명의 인사를 거론하며 다음과 같은 인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제가 2010년 일본 동경을 갔을 때 모자를 사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승효상 건축사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호텔도 같았고 귀국 비행기도 같았습니다. 자신만의 건축철학을 만들어가는

올해 전주건축사회 봉사프로젝트로 '해피하우스' 사업 진행키로

현재 전주시건축사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남중 건축사는 2012년 사업으로 전주시와 '해피하우스' 라는 프로젝트를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 여러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봉사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2년 전주시건축사회 봉사프로젝트로 전주시 시정발전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해피하우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단독주택 밑집지의 전기, 냉난방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하자보수 인원을 처리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사업입니다. 1월 중 관련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건축사들의 단합은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

인터뷰를 마무리 할 때 즈음 그는 '회원들의 단합'을 강조하였다.

"작년 전주시건축사회 회장 경선에서 '건축사 개인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건축사회 조직은 약하다. 그 이유는 단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단합을 하면 어느 단체보다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건축사들이 단합을 한다면 이 사회의 건축문화를 공무원이나 교수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화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김남중'이란 인물은 '세가지 쾌(快)'를 주는 건축사였다. 그는 뛰어난 말주변으로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들었고, 꾸밈없고 시원스런 성격으로 '통쾌'함을 주었으며, 건축인으로서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상쾌'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자신만의 '건축철학'과 '건축언어'는 어떠한 모습일지 기대가 된다.

광고 및
공동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건축문화 사랑

- 16면 전면광고 : 1,500,000원
- 16면의 전면광고 : 1,200,000원
- 하 단 광고 : 500,000원
- 하단1/2광고 : 300,000원
- 하단1/3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 입금계좌
예금주: 평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용협동조합 131-009-471898

전북대 건축학과 유응교 명예교수 예술문화 대상 수상

— 지난달 27일 열린 제25회 한국예총 예술문화상 시상식에서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유응교 명예교수가 지난 12월 27일 서울 대한민국 예술인 센터에서 열린 제25회 한국예총 예술문화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유응교 교수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건축 추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공연장 건설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초석을 이루고 각종 건축전시회와 세미나, 건축디자인학교를 개설해 지역민들의 건축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또한 '세계건축작가론'을 집필하고, 최근에 발표한 동시집을 포함해 총 9권의 시집을 출간하는 등 건축이 종합예술이라는 점을 몸소 실천해 보인 것으로서 건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고 종합예술로서의 건축의 위상을 높인 점 등을 인정받았다.

전북 건축사회 최진호 건축사, 전주시 예술상 받아

— '제22회 전주시 예술상' 시상식에서 건축부문 수상

전북건축사회 최진호 건축사(주) 건축사사무소가 지난 12월 23일 전주 주코아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제22회 전주시 예술상'에서 건축부문 예술상을 수상하였다.

1990년 제회 시상을 시작한 이후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하는 '전주시 예술상'은 문학, 음악, 국악,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연예, 건축 등 10개 부문에서 공적이 뛰어난 예술인에게 시상하고 있다.

최진호 건축사는 건축으로서 전주시를 예술도시로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건축을 담아서 ·

세계에서 가장 큰 지붕, 부산 '영화의 전당'

정일경 과장
건축사사무소 사립

아마 건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건물에 대해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전부터 가보고 싶던 건축물이었는데 광주건축사회 आयु회에서 단체로 견학을 가게 되어 부른 기대감을 안고 출발하였다.



영화의 전당 야경

영화의 전당은 2005년 해외 건축가 7팀을 대상으로 한 국제 공모전에서 당선된 오스트리아 해체주의 건축가 쿨 함멜브라우사의 율프D 프라스가 초선시대 임금의 연류관을 콘셉트로 설계한 건축물이다.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지붕의 한쪽만이 기둥에 받쳐지고 다른 한쪽은 허공에 뜨는 형태를 가진 캔틸레버 형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인데, 캔틸레버로는 세계 최장 길이인 163m로 제작 되었다.

그 거대함과 웅장함에 비해 지붕을 받치고 있는 하나의 기둥은 아찔해 보였지만 규모 7의 강진과 순간 최대 초속 65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고 지붕 위에 1m 이상의 눈이 쌓여도 고덕 없을 정도로 튼튼하다고 한다.

국내에서 보기도 흔한 해체주의풍 건축물이라 해서 기대가 컸었는데 매스의 비대칭성과 불확실성, 특히 지붕이 공중에 떠있는 느낌은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입구를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면서 서서히 느껴지는 시각의 변화는 실로 놀라웠다.



영화의 전당 입구

이 건물에는 팔라디오 양식처럼 중심이 없었다. 공간의 흐름은 내가 어디에 서있는지에 따라 이미지와 모습이 결정되었다. 넓은 규모에 입체감을 주는 공간구성. 어딘지 모르게 차가워 보이면서도 유기적인 내부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내부 전경

영화의 전당은 3개의 건물도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가지는 시내 마운틴, 비프힐, 더블론이다. 또한 이 건물들은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건물들이 특이하고 독특하였다. 건축물을 보는 시각의 차이나 견해는 주관적인 면이 있어서 선불리 말을 못하겠지만 이렇게 기존의 틀을 깨고 건축물의 새로운 형태를 구상하는 것은 본질을 짚어내는 것 같다.

예상보다 일정이 많이 늦어져 원하는 만큼 둘러보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잠깐이나마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던 같다. 추운 겨울날 잠시나마 내 마음을 녹여줬던 영화의 전당. 아는 만큼 보인다 했던가... 아직은 신기하고 화려하게만 보였는데 훗날 다시 찾아오면 어떤 느낌이 들지 궁금한 건축물이었다.

· 학예기고 ·

'끝' & '시작'

정세영 학생기자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12월 말과 1월, 2월은 대학교의 방학이다. 많은 사람들은 원기가 많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4학년, 5학년 졸업반 학생들은 취업경쟁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아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선배들은 이 정도의 사무소에 취업을 했는데 나는 거기에 맞는 사무소, 인테리어 회사, 건축회사 등을 가야 한다'라는 걱정 말이다.

아마도 4, 5학년은 지금이 가장 바쁘게 보내야 할 시점일 것이다. 포트폴리오, 자기 이력서, 그리고 성적관리, 인턴경력까지 아주 힘든 시점이다.

그렇지만 '가장 좋다'라고 싶은 건 많이 있다. 학생 때 접하기 힘들었던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부터는 자신의 경력을 쌓는다는 점 등 말이다.

지리산의 어떤 임자의 스님은 이렇게 말을 하였다. "나는 항상 원기가 두렵다. 그러나 나쁜 일이 있듯이 기쁜 일은 언젠가 한번쯤은 돌아 올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다. '여름', '가을', '겨울'이 가듯이 언젠가 다시 '봄'이라는 계절은 돌아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불행하고 재수가 없다. 라는 발언은 '허구'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두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기쁘다', '다음이 많은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제는 하나의 '끝'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본다. 졸업하는 선배들과 학년이 올라가는 동기들을 위해 위로의 글을 써본다.

광주건축사회 양상훈 건축사, 광주시 유공자 포상 받아

—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주거복지에 공로 인정되어



광주건축사회원 양상훈 건축사(주)이건 종합건축사사무소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지난 12월 말, 광주시에서 주거복지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주거문화·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고, 이에 양상훈 건축사는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주거복지에 공로가 인정되어 유공자 포상을 받게 되었다.

평소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참여로 정평이 나있는 양상훈 건축사는 지난해 4월경, 광주건축사회가 진행한 일본대지진 성금 모금 운동에 거액의 기부금을 기탁하기도 하였다.

본지 박흥근 편집인, 지역 일간지서 뉴파워 인물로 재조명

— 광주일보, 이 지역 뉴파워 59인 중, 뛰어난 활약을 보인 인물로 선정

광주·전남지역 유력일간지인 광주일보는 지난 12월 29일 자 1면에서 창사 59주년을 맞은 지난해 4월 20일 선정한 '광주·전남 뉴파워 59인' 가운데 2011년 한해 뛰어난 활약을 보인 17인을 재조명하였다.

17인 중 본지 박흥근 편집인(주)포유 건축사사무소는 '광주풀리 참여 작가로서의 활동', '광주사직공원공공예술프로젝트 예술총감독으로서의 활동', '건축문화사랑 편집인 활동', '여러 시민단체 활동' 등을 소개하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건축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평하였다.

이와 함께 조명한 17인에는 비독으로 세계를 제패한 박정환 기사, 프랜즈 설비 전국 1위를 달성한 성장E&C(주) 김기영 대표, 비정규직 6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광주구민청회청장, 미래 친환경차 연구개발을 선도한 현대차그룹 양용철 부회장 등이 조명되었다.



광주건축사회 양동현 건축사, 광주예술문화상 공로상 받아

— 한국예총 광주시연합회가 주최하는 광주예술문화상 건축부문 수상



광주건축사회 양동현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에디디 그룹)가 한국예총 광주광역시연합회(이하 광주예총)가 주최하는 광주예술문화상 시상식에서 건축부문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12월 22일 광주 금남로 5가 (주)아모레퍼시픽 3층 강당에서 광주예총 최규철 회장을 비롯한 건축, 미술 등 예술분야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대상과 신인상, 공로상 등 부문 수상자 16명에 대해 시상식이 이루어졌으며 양동현 건축사는 건축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어 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광주건축사회 초대회장 역임한 박영희 건축사 별세

— 지역건축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적 남겨, 광주회원일동 장례 예우 다해

광주건축사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박영희 건축사(무등 건축사사무소)가 지난 12월 18일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박영희 건축사는 광주건축사회가 1987년 전라남도 지부에서 독립하여 창립한 후, 초대회장직을 역임하며 지역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과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등 지대한 공적을 남겼다.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과 임직원 및 회원일동은 합동조문과 발인식에 참석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였다.

장상근 前 광주시 건설방재국장,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으로 선출

- 지난달 14일 임기 3년의 3대 원장으로 선출, 2월 13일부터 직무시작



前 광주시 건설방재국장이자 현재 광주시건설협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는 장상근 前 국장이 前 국장이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에 선출되었다. 장 前 국장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 지자체와 디자인센터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여 광주뿐만 아니라 전북, 전남, 제주까지 아우르는 정책과 그동안 산업디자인분야에만 치우친 정책을 도시디자인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창조도시와 도시재생환경디자인을 포괄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시민과 기업 모두가 공감하고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승효상 건축사가 설계한 광주폴리 11번째 작품 들어서다

- 광주 동구 푸른길 농장다리에 '푸른길 문화센터' 준공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로 추진된 광주폴리프로젝트의 11번째 작품 '푸른길 문화센터'가 지난 12월 23일 푸른길 농장다리에서 준공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푸른길 문화센터'는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인 승효상 건축사가 설계하였다.

승효상 건축사는 설치 전부터 문화시설로 쓰이고 있는 이곳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푸른길 농장다리 하부에 작은 문화센터 이자 도심 속 야외무대와 쉼터 기능을 담당하는 '푸른길 문화센터'를 계획하였다. 농장다리와 푸른길을 연결하는 계단이 자연스럽게 객석과 쉼터가 되게 했으며 그 앞에 무대와 뒷벽을 위한 프레임 설치해 야외무대를 완성하였다.

또 선형공원인 푸른길의 역할 수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통행로를 확보하여 시각적으로 환경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푸른길 문화센터'는 작은 공간이지만 인근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로 계획되어 푸른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활동을 위한 문화적 하부구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도시경쟁력 강화 컨퍼런스 개최

- '광주 도시디자인 경쟁력 강화 및 미래 발전 방안' 주제로 진행



광주시 도시디자인과는 지난 12월 28일 첨단 광주과학기술교육협력센터 대회의실에서 도시경쟁력 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광주 도시디자인 경쟁력 강화 및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는 광주 폴리의 발전방향과 마케팅 전략을 고찰하기 위해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건축사회, 광주·전남디자인협회가 후원하였다.

섹션 1,2,3으로 나누어 진행된 컨퍼런스는 어반인덱스랩 이영선 소장이 '광주 폴리의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전남대 이무용 교수는 '광주폴리의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광주발전연구원 정성구 박사는 '미디어아트 향의도시 발전방안'을 주제로, 광주대 장희천 교수는 '디자인 조직과 타 국가·지역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섹션 3에서는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순준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와 함께 토론자로 동산대 손승광 교수, 호남대 신태양 교수, 광주여대 이난경 교수, 전남대 류재한 교수, 미디어아트스트 이이남, 광주·전남디자인협회 이창호 회장 등 6명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광주의 도시경쟁력이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광주건축단연 주최, 2011 광주도시건축세미나 열려

-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유형 개발'이란 주제로 진행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 주관한 2011 광주도시건축세미나가 지난 12월 26일 광주주대중간벤치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의 '100세 시대-중거의 도전과 기회'와 ANU도시건축연구소 김진욱 소장의 '도시형 생활주택 계획방향 및 설계기준'이란 주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주제발표 후 참석자들과 향후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유

형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건축사는 "주거유형 개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해당 지역 관청의 정책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만 이루실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한편,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이번 세미나를 끝으로 '2011 광주도시건축세미나'를 모두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2011 '장애없는 세상만들기' 프로젝트

- 여섯 번째 프로젝트 광주 운암동 우정경로당 리모델링 준공



'장애없는 세상만들기'는 지난 12월에 여섯 번째 프로젝트로 운암동의 우정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준공식을 하였다. 우정경로당은 근린공원안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담장으로 둘러싸여 공원과 단절을 이루고 있었다. 도로에서 접근을 하는 노인친화적 구 또한 단차가 높아 노인분들의 출입이 불편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칙칙하고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다. '장애없는 세상만들기' 집행팀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학생들과 현장탐방, 사용자의 인터뷰 등을 통해 함께 해결점을 찾아 나갔다.

먼저 공원과 이용과 소통을 고려하여 담장을 없애고 도로와의 주출입구부분의 단차를 제거하여 경사로와 원만한 계단을 새로이 신설하였다. 물론 공원과 이용 편리성 및 조망을 위해 개구부를 내어주고 부출입구도 신설하였다. 내부, 외부 공간의 모든 부분은 턱을 제거하여 장애물이 되는 요소들은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다. 그리고 기존에 매우 좁은 화장실은 사용하지 않은 벽장을 제거하여 넓게 사용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손잡이를 부착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더 하였다.

기존의 좁은 주방 또한 공원으로 창을 내어 공원을 전망할 수 있게 하였다. 외부공간에는 평상과 벤치를 설치하여 햇살 좋은 날에는 삼삼오오 모이셔서 담소를 나눌 수 있게 하였다.

'장애없는 세상만들기'는 우정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공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열림이라는 콘셉트로 2011년 장애없는 세상만들기 프로젝트를 완성하였다.



변경전



변경후

* '장애없는 세상만들기' 프로젝트는 우리 주변의 장애가 되는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여 불편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장애까지 없애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8년부터 생촌사회복지재단과의 노인정과 장애인 컴퓨터 리모델링, 실로암센터 리모델링, 조대치과병원원 유니버설버스트류장, 시각장애인 공동생활홈 신축, 시각장애인 선교회 사무실 리모델링 하였다.

2012광주비엔날레 주제는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

- 다른 사람들, 다른 순간들, 다른 역할들, 다른 입장들을 모으다



올해 9월 7일에 개막하는 제9회 광주비엔날레의 주제가 정해졌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지난 12월 23일 김신정 책임 공동예술감독을 포함한 공동감독 6인을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2012광주비엔날레의 주제 설정 배경, 전시 구성, 추진 방향, 전시기본계획 등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공동감독 6인은 2012 광주비엔날레 주제가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로 정해졌다고 밝히며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고 이 테이블에서는 우리의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지우가 어떠한, 어떤 조건들 하에서 살고 있는,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개인적이고 공공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든, 우리의 삶을 위한 어떤 바람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든 간에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라운드테이블"은 서로 다른 사람들, 시대적으로 서로 다른 순간들, 그리고 예술 생산에 있어서의 서로 다른 역할들은 물론이고 어느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구조내에 존재하는 권력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을 한데 모으는 자리이다"고 설명하였다.

광주 남구청 리모델링 시공업체 최종 선정

- 태영컨소시엄, 종합평점 96.03점으로 한양, 금호컨소시엄 제치고 선정



광주지역 리모델링 공사 중 역대 최대 금액으로 기록될 광주 남구청사 리모델링 공사 시공업체로 태영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었다.

태영컨소시엄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공개한 사전 입찰가 점수와 최근 실시된 광주시 설계심의위원회 결과로 각각 40%와 60%로 환산해 환산한 결과 1위를 기록, 금호와 한양을 따돌리고 남구청사 리모델링 시공업체가 되었다.

태영건설이 50%의 자본으로 참여한 태영건설 컨소시엄에는 성선종합개발(25%), 아인건설 (15%), 유성건설 (10%) 등 3곳의 광주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광주 남구청 리모델링 공사 금액은 330억 원 규모로 백운광장 인근에 있는 백화점 건물의 지상 1층 일부와 지상 5~9층을 청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한다. 다음 달 기공식을 갖고 4월 본공사에 착수하여 내년 1월 준공해 3월 입주하게 된다.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2012년 시무식 개최

- 각 시·도 건축사회, 임진년 새해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 다짐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는 각 지역에서 2012년 임진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회원들의 힘찬 도약을 기원하였다.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1월 3일 광주건축사회관 회의실에서 심상봉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하고 신년인사와 현안업무보고 등을 가졌다. 특히 이날 시무식은 떡 케이크 절단식을 진행하고 회원들과 나누어 먹으며 회원 상호간의 단합을 다졌다.

전북건축사회도 이날 전북건축사회 회의실에서 이상엽 회장과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회를 개최하였다. 이상엽 회장은 신년 인사말에서 "지난 한해 2중 3중 4중(苦)을 겪으면서도 협회운영에 성원해주고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하고 "지난 2011년 세모(歲暮)에 건축법 일부개정안 건축물 유지 관리 점검에 관한법안(안)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소식을 회원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 어느 때보다 기뻐했다"고 말하며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익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님들의 신년인사와 덕담과 건배 등을 마치고 점심으로 떡국을 나누어 먹으며 임진년 신년 하례회를 마쳤다.

전남건축사회도 1월 5일 전남건축사회 소회의실에서 윤문곤 회장을 비롯한 각 지역건축사회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2012년도 힘찬 도약을 다짐하였다.

전북건축사회, 2011 전북 건축인 송년회 개최

- 미래 인재 육성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와 후원 협약 체결하고 후원금 전달



전북도건축사회에서는 지난 12월 22일 전주시에 금양정에서 신묘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1년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건축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한해를 뒤돌아보고 건축인 간의 소통과 단합의 장을 열었다.

이날 송년회에는 전북건축사회 이상엽 회장을 비롯한 전북건축사회 회원, 전라북도 건축가협회·건축학회 임원 및 도내 대학 건축과 교수, 건축행정 공무원 등 많은 건축인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2011년에 있었던 미담을 소개하고, 임진년 새해 덕담을 나누며 전라북도 건축문화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 행사에 전라북도건축사회 前 회장들과 전북대학교와 우석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장영수 원로, 금년도 예총예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전북대 유용교 명예교수, 건축가협회 유남규 전북지회장, 건축회학 이용수 전북지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또 행사에 앞서 전라북도건축사회에서는 "질서와 배려와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슬로건으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어린이 일기장 보급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단법인 일일선시민운동본부(이사장 이상익)와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고민 중

- 소규모주택 공급 확대의 '덕' 과 전주시내 주차난의 '달' 로 고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2010년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는 2011년 말 21건, 500여 세대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도입을 위해 주택법을 개정 한 뒤 지난해부터 소형주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소규모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이 급증함에 따라 전주시내 주차난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에는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했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주거전용 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상업·준주거지역은 120㎡당 1대로 완화됐고 150세대로 제한했던 세대수는 300세대까지 늘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은 대중교통이 발달한 서울 등 수도권에 걸맞은 주거형태로 전주지역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전국적으로 규제를 풀어 놓았지만 지역 현실에 맞게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지구 원룸 못 짓는다

- 단독주택용지 3층, 3가구 이하만 허가



전라북도 군산 미장지구 한계리 계획공공도가 1월 4일부터 1월 18일까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문동신 군산시장(이하 문 시장)이 미장지구 다가구주택(이하 원룸) 건축을 사실상 불허할 방침임을 밝혔다.

문 시장은 2월 신년 기자회견답회에서 신도심 지역으로 개발한 수송지구의 주차난이 차량교통조차 힘들 정도로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미장지구는 주차난의 주범인

원룸 건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문 시장의 원룸 건축 불허 방침은 지난해 10월 28일 전북도가 고시한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변경)실시계획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실시계획에 따르면 미장지구 단독주택 용지는 3층 이하 3가구 이하의 주택만 허가된다. 또한 1층 상가, 2층 이상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상가형 점포주택도 단독주택 용지 중 15m 도로와 접한 부지에서만 신축이 가능해 미장지구 내의 원룸 신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는 이와 함께 미장지구 주택가 이면도로 폭을 수송지구 6m에 비해 8m로 넓히고 상업용지내 공원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도시가스 공급도 전 구역을 대상으로 추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 군산시, 2011년도 건축행정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아

- 전라북도로부터 주택 및 건축행정 전반의 6개 주요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

전라북도 군산시가 전라북도로부터 2011년도 주택 및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게 되었다.

전북도는 지난 12월 21일, 11월경 도내 시와 군 단위 관청을 대상으로 주택 및 건축행정 전반의 6개 주요 항목을 평가한 결과 건축물 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 저소득계층 주택개보수 및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군산시를 우수기관에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미장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주요 간선로변의 건축물 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 코디네이터(Coordinator)제도를 운영하고, 빈집 정비를 통한 주민센터 조성 과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였다.

또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에서 당초 목표량의 2배 이상을 초과하여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는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부문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2011년도에 잘된 점과 미진한 점을 비교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축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기 광주건축사 Academy 종강하다

- 지난 12월 20일 제6강좌를 끝으로 종강해, 회원 40여명 수료



작년 10월부터 개강한 제2기 광주건축사 Academy가 지난 12월 20일 제6강좌를 끝으로 종강하였다. 2010년부터 회원들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분야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한 광주건축사 아카데미는 광주회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2기를 맞이하였다. 제2기 강좌는 제1기 강좌와 달리 강좌 횟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건축사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핵심적인 강의들만 선별하였다.

마지막 강좌가 열린 12월 20일에는 대한건축사협회 회계를 전담하고 있는 천지희계 법인회용 회계사를 초청하여 '건축사 경영자(CEO)가 알아야 할 세무경영관리'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강좌는 광주회원들이 평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여서 공개강좌로 진행하였으며 약 50여명의 회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청강하였다.

이번 아카데미 원정을 맡고 있는 송건 건축사(대호 건축사사무소)는 아카데미 수료자들에게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에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무사히 제2기 광주건축사 Academy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제3기 건축사 아카데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기 아카데미는 회원 40여명이 수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광주건축사회, 2012년에도 다양한 사업 진행한다

- 건축사 대상 광주광역시장 표창 추진, 중국 광저우지부와 결연 등

광주건축사회는 2012년 임진년에도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3일 열린 시무식에서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은 2012년 신사업으로 광주건축사회원 대상 광주광역시장 표창 추진과 '건축공사 지도·점검위원회' 설치, '중국건축사등록위원회 광저우 지부와 결연 추진' 등을 진행하겠다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장 표창은 청년건축사(만45세 이하 건축사)와 우수건축사(연령 제한 없음)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청년건축사상은 디자인자문신청 대상 건축물 중 우수작을 선정하고 우수건축사상은 지역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건축사를 선정한다고 하였다. 현재 광주광역시장 표창 대상자 선정을 위한 9인 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기준 등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건축공사 지도·점검위원회 설치 또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점검시기는 정기점검(진/후반기)과 수시점검(문제 발생시)으로 구분되며 점검대상은 당해년도 건축허기를 받아 시공 중인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한정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국제교류 부분에서는 중국건축사등록위원회 광저우지부와 결연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올해 3월 송 광저우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결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25회 정기총회는 오는 2월 29일 오전 10시에 광주 신영파크호텔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제14회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 미술전 개최

- 오는 1월 19일 오후 5시, 광주 북구청 1층 갤러리서

올해로 제14 회를 맞이하는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 미술전이 오는 1월 19일 오후 5시 광주 북구청 1층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매년 미술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축사로서 예술적 감각을 선보이고 있는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는 올해에도 회원들의 수준 높은 작품 3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미술동호회 총무인 정태호 건축사는 "이번 미술전은 건축 예술이 상호 조화적 관계이며, 조형 창작 예술인의 연속 선상에 있음을 느끼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하였다.

제4회 전남 여수 건축문화제 성황리에 폐막

— 친환경 건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해



제4회 여수 건축문화제가 지난 12월 17일 성황리에 폐막하였다.

12월 16일부터 이틀간 전남 여수YMCA 생태교육관 일원에서 진행된 제4회 여수 건축문화제는 2012여수엑스포의 성공개최와 살기 좋은 도시건설,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주요 행사로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하기 위한 학술발표 및 실제 적용사례 발표가 진행되었고, 친환경적 접근 및 표현방법을 통한 지식의 습득과 자재의 적절한 선택을 확인하는 현장교육이 진행되었다.

또한 여수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와 여수 건축사회원 작품전도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전이행사로 여수 건축인의 발을 개회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여수시 정병재 부시장과 여수시 의회 김영구 의장이 참석하기도 하였다.

여수 지역 건축사회 김정현 회장은 "이번 건축문화제가 우리지역의 아름답고 건강한 친환경 건축문화를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고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광주 건축계 동정

***전입**

- 이영곤 건축사 / 니엥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유촌동 843-2 (지하 1층)

***변경 (소재지 변경)**

- 김영전 건축사 / 이도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차평동 1002-8 (2층)

- 임이기 건축사 / 푸른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동림동 274-2 (2층)

***부고**

- 이윤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시공간설명 / 부인상 - 12월 31일 (토)

- 강성진 건축사 / 무진 건축사사무소 / 빈모상 - 12월 23일 (금)

- 박영희 건축사 / 무등 건축사사무소 / 별세 - 12월 18일 (일)

전남 건축계 동정

***입회**

- 김효중 건축사 / (주)국토정보기술단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성북동 169-17 3층

- 황인광 건축사 / 미산 건축사사무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392-2

- 정종훈 건축사 / 지우 건축사사무소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20-9

전북 건축계 동정

***부고**

- 이철현 건축사 / 다울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12월 12일 (월)

유지관리점검 관련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12.30)

● 건축법 개정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용어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16호의 신설).
- 나.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사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
- 다.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 제정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업)는 소규모건축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을 제정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254호)하였다

그간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 설계 등을 통해 지진 안전성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였으나, 그보다 작은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이유로 구조설계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금번에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별도의 구조 설계를 하지 않고 서도 지진은 물론 적설이나, 바람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 지침을 활용할 경우 소규모건축물도 국민들의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손쉽게 지진에 대비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현재는 2층 이하 500㎡ 미만의 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으나, 향후,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사법」이 개정 (법률 제10756호, 2011. 5. 30. 공포, 2012. 5. 31.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의 실무수련 자격등록, 갱신등록 및 실무교육 등 개정법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법들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수수료(안 제10조)
- 나. 실무수련자 신고안 제14조부터 제14조의2까지 신설)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사법」이 개정 (법률 제10756호, 2011. 5. 30. 공포, 2012. 5. 31. 시행됨에 따라, 실무수련이 기간 및 실무교육이 오건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개정법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건축사 자격증 직권말소안 제6조 후단신설
- 나. 건축사의 실무수련(안 제15조부터 제15조의4까지 신설)
- 다. 건축사사무소가설신고 면제기관 추가(안 제25조제2호 신설)
- 라. 건축사의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안 제26조)
- 마. 건축사의 실무교육(안 제30조)
- 바. 건축사징계위원회(안 제32조부터 제32조의8까지 신설)
- 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위임·위탁(안 제35조)
- 아.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

광주·전남·전북지역 1월 지역축제 안내

- 01. 06 (금) ~ 02. 25(토) 2012 지리산 남원 바람꽃 축제 - 전북 남원시 바람꽃
- 01. 13 (금) ~ 01. 17 (화) 제1회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 - 전북 무주군 남대천 일원
- 11. 05 (토) ~ 01. 15 (일) 진원장 전 - 전남 보성군 우중미술관
- 11. 26 (토) ~ 02. 29(수) 빛 2011전 - 광주 북구 광주시립미술관
- 12. 09 (금) ~ 01. 29(일) 전남 보성군 북재 다원, 다향각 전망대 일원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2012년 10월 광주에서 뵈겠습니다.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서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062-226-7400 팩스: 062-225-5310
홈페이지: nicelawyer.co.kr/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심상봉, 윤본근, 이성엽
편집인: 박용근
편집위원: 박승국
편집위원: 이순미, 서재영,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관성, 이광영, 박상훈, 천경호, 박승호, 양우연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신화문 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062)521-0025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금: 1만 원부터
- ▶ 후원방식: 신한 131-009-471898 (계좌주: 광주건축사회)

광주하우징산업 150만 원
문 형 록 | 반석기(이앤씨주) 100만 원
알파시스템(하우징) 50만 원

건축문화 사랑

표 / 지 / 설 / 명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광주대회 개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며 전국 1만여 건축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건(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명,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매월 25일
분 의: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jk@empai.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세
상
사
는
느
끼
기

「겨울의 일상」

박성욱 주부
담당 총평

창평에 적을 두고 산지가 벌써 구년이 되어간다.

처음에 내려와서는, 여덟시가 넘으면 칙칙한 밤이 무섭고 낯설었다. 이사 온지 삼일 째에는 갑자기 열시쯤에 정전이 되었다. 온 주위가 캄캄한 암흑이라, 진짜 두려움이 달려들었다. 남편은 하필 야간근무라서 나 혼자서, 아이 셋을 밤새 지켜야만 했었다. 두해 째는 큰 폭우가 집 앞 개울을 넘실거리고, 창고의 배수로에 물이 차기도 했다. 생전 처음 뱀이 눈 앞에서 구불구불 지나가기도 하고, 쥐가 거실에 들어오기도 하고, 두꺼비가 매 년 두 마리씩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저런 기막힌 사연들을 두고도 내가 이 집을 놓지 못하는 것은 내 눈 앞에 펼쳐진 풍경 때문이었다. 겨울이 되면, 시골은 가만히 내려앉아 조용히 침묵한다. 산은 깎질을 벗고, 속살을 보인다. 눈이 오면, 산은 마치 철학자의 풍모를 풍긴다. 집 앞의 눈들은 그냥 그대로 휴식을 취한다. 새들도 오고가고, 족제비도 오고가고, 꿩도 오고가고, 다만, 천장의 쥐들만이 수선스럽다.

시골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며...

한 해가 간다는 것은 이렇듯이 조용히 그리고 새로운 힘을 잉태하는 기운을 보인다. 언젠가 눈이 많이 와서, 대문 이 열리지를 않았다. 억지로 눈을 헤쳐서 열고, 영화에서 본 것처럼, 눈을 파서 굴을 만들고 뛰어다녔다. 아이들은 신나서, 이글루를 만든다면서 헤치고 다녔다. 차갑게 양 풀이 얼어붙을 때쯤 나는 아이들을 부르고, 뜨거운 코코아를 먹이면서 신나게 이야기를 시킨다. 아이들은 서로 먼저라면서 아우성 거린다. 겨울은 외풍도 심해, 거실은 보일러를 많이 때지 않으면 춥다. 어마어마한 난방비로 두꺼운 이불을 깔고 굴을 까먹고 두런두런 이야기한다. 아이가 셋인 사람들은 알 텐데, 특히 우리 아이들은 이런 저런 이야기에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

옆 집을 놀러 가면, 난방비 때문에 나무난로가 있어서 그 통에 고무마를 구어 먹고 차를 마시고 서로 마을 돌아가는 이야기에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누구누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가정마다 가지는 고민으로 건물이 몇 채는 만들어졌다 부서지기도 한다. 아파트에 살 때와 살아가는 풍경이 매우 다르다.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산이 하얗다. 뒷밭에 심어 놓 배추가 살짝 얼었다. 상추도 언 것 같다. 신기한 것이 날이 풀리면, 배추나 상추가 이상하게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다. 사계절이 두루두루 나를 휘감는다. 나는 절대로 계절에 독립적이지 않다. 사계절 내내 나는 그 안에서 즐겁게 휘둘리면서 산다.

이층으로 된 우리 집은 우리 가족에게는 편안함이고, 따스함이다. 아이들과 나, 남편에게는 이 집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를 오고 나서야, 나는 집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 겨울의 일상은 더더욱 우리에게 어서 집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다.

내 나이 마흔 넷, 이 겨울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

한
편
의
시

첫사랑과 첫눈

김영란 주부
평주 평산구

첫사랑과 첫눈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그 첫 번째는 그리움입니다.
첫사랑의 그리움
첫눈의 그리움
간절하게 그리워
간절하게 구해보고자 하지요

두 번째는 흘림입니다.
이들테면 의지나 힘으로 아쩔 수 없는
흘림이지요

세 번째는 쌓임입니다.
첫사랑의 쌓임은 눈을 멀게 하지요
첫눈의 쌓임 또한
김을 해매게 하지요

첫사랑과 첫눈 모두
아무것도 아니게 흘러
한없이 무기력하게 합니다

첫눈 오는 오늘 저녁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내
가
이
런
은
책

「공간 공감」

김종진 지음 / 효형출판

이경탁
윙일 건축사사무소



공간을 소재로 공간 공감이라는 책은 공간에 대한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리한 한편의 교양서와 같이 다가오는 책이다

노란색 빛으로 충만한 루이스 바라간의 길라르디 주택을 표지로 이 책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일상적이면서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자리 잡고 있을 듯한 공간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공간을 거닐 때나 그 속에 머무를 때 느끼는 공간의 울, 또는 공간의 빛, 어둠의 의미를 공간 속의 향기를 맡고,

듣고, 만지는 감성적 접근을 수필처럼 들려준다.

이 책은 적절한 인문학적 인용과 회화를 통해서 동서양의 공간에 대한 인식이 같지만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공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가 제시한 여러 회화 작품 중 가장 공간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인상적인 것은 렘브란트의 자화상인 것 같다.

그의 말에 의하면 렘브란트는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기 위해 촛불을 의지해서 자화상을 작업을 하였다고 하고, 그렇게 완성된 자화상은 명확한 빛의 대조를 통해서 공간을 인지하게 한다 라고 설명을 한다. 그의 관점에서 조금만 벗어나 그림을 살펴보면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무한한 공간감을 내포하고 있다.

자화상의 촛불은 화가의 얼굴을 그리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그림으로 비추어 지는 화가와 그림을 바라보는 관람자의 공간의 한계를 해소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흔히 공간에 있어 빛은 공간의 볼륨을 규정하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이 도달하여 부딪히는 면까

지만 우리는 공간의 한계라고 받아들인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에서 촛불은 그림이 대상이 되는 자신이 얼굴만을 밝힐 수 있는 미약한 힘을 가질 뿐 어둠 속에 실존하는 벽에도 달하기도 전에 사라져 버리는 미약한 존재이다. 그렇지만 공간의 한계를 규정하지 못할 만큼 미약한 빛은 다른 그림에서 느낄 수 없는 무한공간을 만들어 준다. 이처럼 공간을 대하는 관점은 같은 대상의 공간이다 하더라도 차이를 들 수 있으며 다른 의미로 접근할 수 있는 것 같다.

이 책을 읽다보면 정말 오랜만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것 같은 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 누구에게나 건축을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어 했던 대학시절로 보내주는 것 같다.

처음 접하는 건축을 묻고 답하려했던 그 시절의 공간이란 많은 이야기의 고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건축을 처음 접하던 많은 사람에게 고민의 시간을 가지게 했던 소재이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건축을 배우는 과정 속의 추억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더 공간의 물음에 진솔하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월출산의 풍경화

밭두렁 한켠에 고즈넉이 들어앉은 반터에서 풍경이나 품고있는 월출산이 반경구나 우뚝 솟은 바위들도 험강도 있고 노랑도 있다 겨울이 마주치는 이따리가 쓸쓸하고 애잔하구나 월출산 그 모습 마음에 그려 그 속에서도 하나의 풍경입니다. - 월출산 자리에서

영동현 건축사작 / (주)윙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남해의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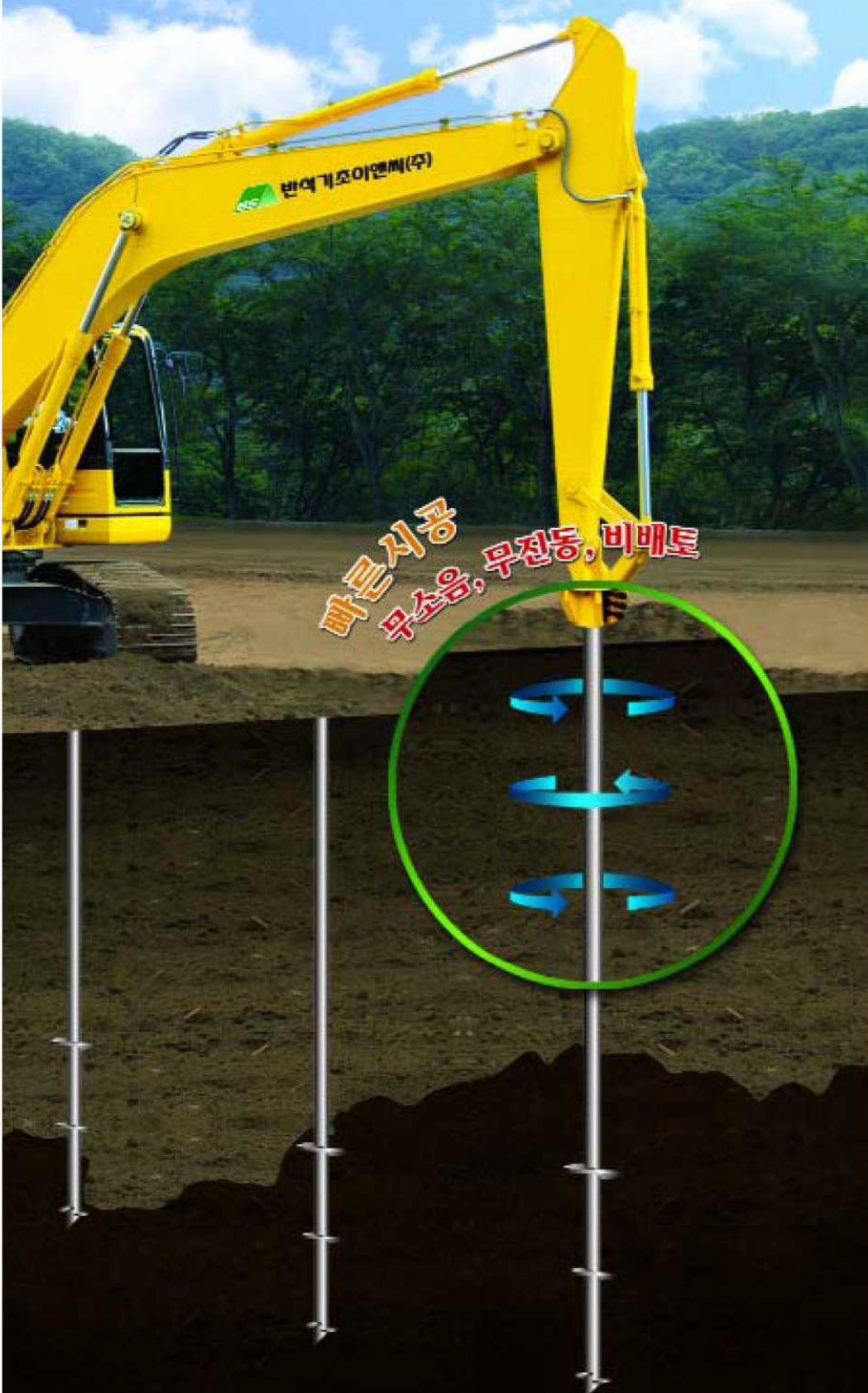
루트바다 위에 햇살이 스프레이처럼 눈부시게 채색하듯 우리의 마음을 또한 행복과 웃음으로 채색되었으면 한다.

촬영자: 이경영 건축사작 / 경남 남해 다영마을

경
주
나
G
a
l
l
e
r
y
&
P
h
o
t
o

ROTARY PILE 공법

나선형 회전운동으로 지반에 삽입하여 주변 마찰과 선단지지함으로써
압축과 인장력에 강한 지지력을 최대화한 친환경 파일 공법



빠른시공
무소음, 무진동, 비배토

시공사례



부천고강동 공영차고지



군산 한산공점



군산 OCI 공장



마주 한양 아파트



속초 한화리조트